



보호와 지원

범죄피해자구조전화 1577-1295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제4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소식지

(02) 586-1295 www.kcva.or.kr

스마일센터 2010년 7월 1일 개소 이귀남 장관 “실질적 접근으로 회복과 자활 힘써” 이용우 회장 “선진국 수준의 치유 기관” 운영 포부



▲개소식에 앞서 스마일센터 개소를 알리는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이귀남 장관이 이용우 연합회장에게 위탁운영 중서를 전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고, 그 수법에 있어 흉악해 지는 각종 강력범죄에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스마일센터가 7월 1일 문을 열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주변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 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과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 교육, 구직 알선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고 있다. 또 거주지에서 발생한 범죄로 집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최장 1개월 동안 임시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날 스마일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박영아 국회의원, 법무부 송찬영 인권국장 및 김현철 인권구조과장, 대검찰청 조영곤 강력부장, 피해자인권과 김주원 과장과 관련기관 관계자 및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사무국장,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개소식에 앞서 센터 시설 및 피해자들이 생활하게 될 생활관을 둘러보고,

스마일센터의 위탁운영을 맡게 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이용우 회장, 전국의 피해자지원센터의 이사장들과 스마일센터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서 이귀남 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을 치하하고, “앞으로 스마일센터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자활에 보다 실질적인 접근 방법으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찬에 이어 스마일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해자를 이해하고,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하는 직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BS 박주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개소식 행사는 관련 동영상 시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의 경과보고(김현철 인권구조과장), 위탁운영 중서 수여, 성모병원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이귀남 장관 축사 및 이용우 연합회장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개소식 말미에는 홍보대사인 탤런트 박은혜씨의 피해자 권리 선언과 남성 중앙단 ‘우나보체’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개소식 축사에서 “스마일센터가 범죄피해자들이 피해 당시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피력하였으며, 위탁운영을 맡은 이용우 회장은 스마일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범죄피해자 치유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스마일센터가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웃음을 되찾아 주고, 그 웃음을 통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용우 연합회장

36차 NOVA 총회 참석

국가 초월한 범죄피해자 지원위한 업무협약 합의
스마일센터 정부시설 개소 소개하자 참석자들 박수



▲왼쪽부터 NOVA 워싱턴 사무총장, KCVA 이용우 회장, NOVA 로버트 덴튼 회장.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이용우 회장은 8월 22일부터 25일 까지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있었던 제 36차 NOVA Conference에 참석했다.

23일 솔트레이크 시티 시장 Ralph Becker, 미국 사법부 산하기관 OVC(the Office for Victims of Crime)의 Acting Director인 Joye E. Forst 등의 축사로 시작된 개회식에서 내빈자격으로 참석한 이용우 회장은 축사에서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 NOVA 로버트 덴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한국도 기금 확보로 인해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피해자 지원의 지평을 열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자활을 목적으로 한 스마일센터가 정부 시설로 개소가 되었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용우 회장은 지난 35차 총회에도 참석하여, 한국의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을 소개한 바 있다.

NOVA Conference는 요일별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 요원으로서의 기술과 방법 ▲피해자 가족에서 피해자의 죽음을 알리는 방법 ▲다문화 가족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보와 방법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전략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특히 아직까지는 국내에 활성화 되지 않는 사이버 범죄 피해자 지원, 테러 범죄피해자 지원 등과 관계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법무부에서도 피해자 지원 담당 검사와 실무관이 워크숍에 참석을 했다.

한편 이용우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NOVA의



▲NOVA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있다.

국가를 초월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 피해자 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

연합회, 베트남 신부 살인사건 지원

국내 피해자 구조금 최고금액 3,000만원 지원결정

찬송환 대사에 서한과 지원금 전달



▲이용우 연합회장이 찬송환 베트남대사에게 서한과 지원금을 전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7월 23일 한국에 온 지 8일 만에 정 신병력의 남편에게 살해당할 땀 티황옥 씨의 유족에게 지원금과

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했다.

연합회는 사건 발생 이후 부 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모금활동을 벌여 피해자 유족에게 국내 피해자구조금액의 최고수준인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용우 연합회장과 심연주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이 대사관을 방문하여 찬송환 베트남 대사에게 전 국민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서한 『베트남 정부와 국민께 드리는 글』과 지원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모금에는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전국의 많은 분

들이 익명으로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원금 전달이 끝난 후 이용우 연합회장은 “불행한 일로 대사관을 방문하게 되어 가슴 아픈게 생각하며, 부산센터를 중심으로 연합회와 전국의 57개 센터가 정성을 모은 만큼 피해자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을 대신해 지원금과 서한을 전달받은 찬송환 베트남 대사는 그간 연합회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아름다운 책임을 다 해주어 감사하다”고 했다.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베트남 여성과 한국남성 부부는 무려 37,000쌍이나 되며, 그 중 70% 이상의 부부는 행복가정을 꾸려가고 있다고 말한 뒤, “이미 한국사회의 일부가 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민간 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원을 계기로 앞으로 연합회와 베트남 대사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길 바라며, 베트남 의외통상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도 이와 같은 뜻깊고 고귀한 뜻이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철 피해자 어린이 지원

서울남부센터와 전국센터서 모금한 4천만원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온 국민을 경약하게 만든 김수철 피해자 어린이에게 전국 센터에서 모금된 지원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7월 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서울남부지검 김학의 검사장과 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승제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어린이의 아버지에게 연합회와 전국 각 센터에서 모금된 지원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을 전달 받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 유용하게 쓰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김학의 검사장은 “세상은 더불어 사는 곳으로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 아님을 느꼈으며 좋겠다”며 “앞으로도 연합회 및 전국의 범죄피해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긴급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힘써왔다.

전국 수형자 후원금 모아 피해자 자녀 지원

1, 2차에 걸쳐 44명의 총 2천2백만원 장학금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이용우)는 전국 수형자들이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해 보내온 후원금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 들어 총 2차에 걸쳐서 지원된 장학금은 전국 센터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 중 심의를 걸쳐 지원했으며, 1차에 20명에 대해 각 50만원씩 총 1천만 원, 2차에는 24명에 대해 각 50만원씩 총 1천2백만 원을 지원했다.

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들 중에는 범죄피해로 인해 가정환경이 어렵고, 본인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2차 장학금 수혜를 받은 흥성센터의 A학생의 경우, 본인과 가정이 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전교 석차 1등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 등 타에 모범이 되었다.

이용우 연합회장은 “교도소 복역 중 근로에 의한 수입이 결코 많지 않은데, 전국 교도소의 수형자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후원금을 보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수형자들의 뜻이 잘 전달 되도록 피해자 및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후원금을 보내 준 전국 교도소의 수형자들에게 연합회장의 서신을 발송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 할 예정이다.

법률신문 주최, 법조인 자선 골프대회

모금한 4,233만원 이용우 연합회장에 전달

법률신문의 주최로 열린 법조인 자선 골프대회를 통해 거두어진 성금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으로 쓰이게 됐다.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은 6월 17일 대검찰청 1층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방문하여 지난날 31일 법조인 자선 골프대회를 통해 모금한 4,233만원을 이용우 연합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사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올해로 환갑을 맞은 법률신문사가 법조계 기부 문화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며 “법조인들

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범죄 피해자 및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어 “선진국 수준의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법조계가 앞장 설 것”이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금을 전달받은 이용우 연합회장은 “언론사가 범죄피해자 지원에 나서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며 “이와 같은 기부문화는 보호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돋움 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법률신문사는 5월 31일 용인시의 레이크사이드 컨트리 클럽에서 제 1회 법조인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 변호사회, 경인지역 변호사 단체가 공동 후원한 이 행사에는 신성택(고시 16회)·이용우(사시 2회)·유지담(“ 5회), 이규홍(“ 8회)·박재운(“ 9회)·손지열(“ 9회) 전 대법관,



▲이용우 연합회장이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과 지원금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경원(“ 8회) 전 법무부장관, 송인준(“ 10회) 전 헌법재판관, 송광수(“ 13회)·김종민(“ 15회) 전 검찰총장, 김현(“ 25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국내 주요 로펌 대표 등 모두 142명이 참가하여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뜻을 같이 했다.

통합행정시스템 구축, 10월부터 작업 돌입

경인지역 센터 직원 간담회 의견 적극 반영



▲이용우 연합회장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법 개정 및 시행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정신과적 치료지원을 위한 통합행정시스템』(이하 통합행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통합행정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앞으로 연합회와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보

호·지원에 관한 각종 실적이 관한 실시간 업무입력 ▲각 지원 과목별 정확한 통계자료 도출 ▲내부 인터넷 망을 이용한 각 센터와 연합회간 원활한 네트워크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회는 9월 중 관련 업체들과의 미팅을 통해 통합행정시스템 구축 업체를 선정했으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에 들어가 2011년 1월에 전국 센터에서 일제히 가동될 예정이다.

한편, 통합행정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8월 13일 경인지역 피해자지원센터 직원들과 스마일센터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그간 업무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의견은 통합행정시스템 구축과 향후 연합회의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2010년 제1, 2차 전국 자원봉사자 2박3일 교육

자원봉사자 기초교육과 직원대상 심화교육 실시 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및 상호 네트워크 강화



▲자원봉사자들이 2박3일 교육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월 5일부터 7일,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 두번에 걸쳐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법무부가 주최하는 『전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자원봉사자 교육』이 용인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전국의 각 센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대상의 (기초교육)과 법무부 인권구조과와 연합회의 요청으로 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

(처)장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각각 2박 3일간 실시됐다.

기초 교육에는 자원봉사자의 역할, 범죄피해자의 이해와 범죄유형별 피해자 상담기법 등 총 14 과목이 편성되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제 상담이나 피해자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더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방법에 대한 토론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심화 교육에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전략, 선진국의 피해자 지원 정책과 사례,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샵 등 14개 과목이 편성되어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특히 미국 피해자 연합 NOVA의 국가위기대처자격 프로그램(NCRCP)을 모티브로 우리나라 피해자 지원 실정에 맞춘 피해자 지원 전문가 기본수칙 관련 교육도 이루어졌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및 상호 네트워크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연합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업무협약

법률적 자문과 지원 기회 신속 제공 기대



▲이용우 연합회장과 박배희 소장이 협약서에 사인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회는 8월 17일 범죄피해자의 효율적인 보호·지원을 위하여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소장 박배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여의도동 소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의실에서 거행되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두 기관의 상호 협력을 약속한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예기치 않은 범죄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적기에 원활한 법률적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캠페인 등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제고와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피해자 지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가정법률상담소 산하 31개 지부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을 했다.

한편 한국 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에 설립된 법률구조기관으로 아동·여성 대상 범죄, 가정 폭력 범죄 등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다.

연합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와 협약

146개 성폭력 상담소간 유대관계 강화



▲이용우 연합회장과 이재희 상담소 대표가 협약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회는 4월 13일 대검찰청 연합회 사무실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상담소 대표 이재희)와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우 연합회장, 이재희 상담소 대표를 비롯하여, 김주원 대검 피해자인권과장과 전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서울·인천·경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회와 협의회의 이번 업무 협약으로 전국의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146개의 성폭력 상담소간의 유대관계 강화는 물론,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회, (주)씨알푸드 지원협약

전국 피해자가족 중 어린이에 매분기 지원



▲이용우 연합회장(우)과 이상범 씨알푸드 대표이사(가)가 협약서를 들어보고 있다.

연합회는 주식회사 씨알푸드(대표이사 이상범)와 범죄피해자 지원협약을 맺었다.

4월 13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거행된 협약은 대검 김주원 피해자인권과장과 이용우 연합회장, 최상덕 연합회 부회장, 이상범 씨알푸드 대표이사, 홍인교 경영기획부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씨알푸드는 순수한 우리 기술로 한국인의 입맛과 체질에 맞는 시리얼 식사대용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생산되는 대표적인 상품인 "씨알로"를 매분기 200상자씩 피해자를 위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전국연합회는 기증받은 제품을 전국에 있는 범죄피해자가족 중 중학생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 200명을 선정하여 매분기 1상자(600g 16개입)씩 피해자 가정에 택배를 통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 이제는 국가가 직접 보살펴 줍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8월 15일 시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난 4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8월 15일부터 시행되어 보다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우선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최대 3,000만원의 구조금이 유족 구조금의 경우 최대 5,400만원으로 징해 구조금의 경우 최대 4,500만원까지로 증액되었다.

또한 '중상해 구조금'을 신설하여 징해 6급까지만 지급되던 징해구조금을 징해 10급까지 지급토록 개정하였으며, 살고 있던 곳에서 범죄가 일어났거나, 방화 등으로 주거지가 소실이 되었을 경우 피해자들이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 우선 피해자에게 지급되던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하였고, 지금까지 피의자의 검거 여부, 피의자의 자산유무에 따라 구조금 액액의 희비가 갈렸던 것과 달리, 피의자 검거 여부, 자산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피의자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다. '강호순사건'의 경우 피의자 강호순이 재산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월 소득과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 피해 이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개월 수를 종합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 구조금 산정 방식

기준금액	×	개월수	×	배수
피해발생 직전 월평균소득 또는 일용근로자 월평균임금		· 징해구조금은 등급별 3~30개월 · 유족구조금은 유족순위에 따라 18~30개월		유족 또는 가족의 수 부양 여부에 따라 결정

	개정전	개정후
구조금 대상	피의자가 미검거 되었거나, 무산자인 경우에만 국가가 구조금 지급	피의자 검거 여부, 자산유무에 관계없이 국가가 우선적으로 구조금 지급
구조금 액수	유족 구조금/징해 구조금 구분 없이 최대 3,000만원 (피해이전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고려)	유족 구조금 최대 5,400만원 징해 구조금 최대 4,500만원으로 증액 (피해이전 월 소득과 부양가족, 개월 수 고려)
징해등급산정	징해 14등급 중 6등급까지만 구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	징해 14등급 중 10등급까지 구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
주거지원	없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범죄피해구조금심의회를 통해 지원

가장 획기적인 개정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

한편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국가에서 한해동안 거두어들이는 벌금 중 4%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범죄피해자 구조금과 관련된 사업에 쓰이게 되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책정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약 600억 원 정도이며, 앞으로 정부는 점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2015년에는 최대 1억 원까지 구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5조(구조대상 범죄피해) ①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징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제6조(중상해)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징해) 징해는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8조(국가와 복구)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심리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11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 설치·운영 기준, 인소·시설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한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16조(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와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계에 대한 지원과 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사항

제1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계에 대한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계의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징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만 18세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특정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징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4면에 이어서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어난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유족구조급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4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⑤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급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한 유족구조급금을 받을 수 있는 선 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급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제19조(구조급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의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2. 직계혈족
3. 4촌 이내의 친족
4. 동거친족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급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 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④ 징단적 또는 신분적으로 불합법성을 할할 우려가 있는 조처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처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중대한 위해에 처하는 행위

⑤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급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중대에 가중(加重)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작위 행위
- ③ 유족구조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법원의 순위 유족"으로 본다.

⑧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급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구조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급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급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료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구조급액) ① 유족구조급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여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장애구조급금과 중상해구조급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여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 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애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급여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④ 이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長)의 증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여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여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법은 외국인이나 구조피해자(자녀)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4조(범죄피해구조금의 회부) ① 구조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경찰청에 범죄피해구조금심의위원회(이하 "지구조금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금분회의위원회(이하 "분회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구조금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경찰청장 관할 구역(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③ 구조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심의·결정한다. ④ 분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내에 그 지구조금심의회를 거쳐 분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심신청이 있으면 지구조금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구조급 지급신청 기록 일체를 분부심의회에 첨부하여 한다.

⑥ 분부심의회는 제4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⑦ 분부심의회는 구조급 지급신청을 각하한 지구조금심의회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사건을 그 지구조금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⑧ 분부심의회는 구조급 지급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여 재심신청을 하면 사건을 해당 지구조금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제25조(긴급구조급금의 지급 등) ① 지구조금심의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구조피해자의 장애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급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급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조금심의회에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구조금심의회가 긴급구조급 지급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급금을 지급한다. ④ 긴급구조급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조결정을 지급하는 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긴급구조급으로 지급한 금액 내에서 구조급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⑤ 긴급구조급금을 받은 사람은 지구조금심의회에서 결정된 구조급금의 금액이 긴급구조급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며, 지구조금심의회에서 구조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급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결정을 위한 조사 등) ① 지구조금심의회는 구조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지구조금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30조(구조급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급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조금심의회는 분부심의회 결정에 따라 그 받은 구조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급금을 받은 경우
2. 구조급금을 받은 후 제23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구조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할 때에는 국제재정의 예에 따르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제 및 지방에 다음으로 한다.

제31조(소멸시효) 구조급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32조(구조급금 수급권의 보호) 구조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5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이 법에서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은 자선 목적을 가진 자를 주축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령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법무부령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조금의 목적 및 사용금지 및 반환) ① 등록법인은 제33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법무부령은 등록법인이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6조(감독 등) ① 법무부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법인의 장부·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령은 등록법인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형사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권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사건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며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형사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⑦ 형사조정위원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제정까지의 정당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평하고 일관한 회화와 범죄피해자는 형사 조정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이 회부되던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당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송부를 보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관련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송부하고, 판단하면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형사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다.

⑤ 관련 자료의 송부나 제출 절차 및 열람 등에 대한 동의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난 후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형사조정의 과정 및 그 결과를 받은 서면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준용규정) 형사조정위원이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사람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또는 형사조정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3. 제47조(안법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대표자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8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령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023호, 2010.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 폐지한다.

제3조(일부개정 경과규정)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조에 관한 규정의 폐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는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이나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귀남 장관, 추석명절 맞아 피해자 가정 방문

안타까운 마음 전하며 “정상적인 삶 찾도록 노력할 터”



▲이귀남 장관과 이용우 연합회장이 피해자 할머니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이귀남 장관과 이용우 연합회장이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용우 전국범죄 피해자지원연합회장은 9월 7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예기치 않게 범죄를 당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위해 범죄 피해자 가정을 위로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가정의 정OO 할머니는 3년전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일어난 범죄로 장남을 먼저 떠나보내고, 차남마저 하지 마비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고 있는 가운데, 남은 손자 2명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할머니 또한 노력으로 인한 심한 관절염으로 사실상 경제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65만원의 기초 생활금과, 서울고검 직원들의 『사랑의 손잡기』에서 지원하는 20만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나, 할머니와 병석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 2명의 손자가 함께 생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귀남 장관은 할머니 가정의 생활고를 귀 기울여 들으며 연거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준비한 금일봉을 전달하면서 생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이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제도와 법규가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피해자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하루 속히 이

들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우 연합회장은 정성껏 준비한 과일을 전달하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소외된 범죄피해자들이 없도록 피해 발굴과 보호·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1, 2심 형사재판서 가해자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 가능
전국 검찰청, 피해자센터, 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배포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의 가해자를 가정보호사건 재판에 넘길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에게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 대상 범죄는 상해, 폭행치상상, 과실치상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절도, 강도, 강간, 추행, 손괴죄 등이다.

이 같은 범죄의 피해자는 별도 민간 소송을 하지 않고도 1,2심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 할 수 있다. 가정 폭력범죄의 1심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침은 또 검사나 피해자 보호시설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중대 범죄의 신고자나 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신변을 보호해야 할 경우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 할 수 있게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몇 개 지역에서 보호시설을 운영 중이다.

대검은 위와 같은 지침이 시행이 되는 권리안내 포스터를 제작하여,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전국의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김주원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범죄 피해자는 법률과 지침에 의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권리 안내 제도와 피해자 인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피해자권리안내지침을 시범운영중이며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검 홍보 동영상 제작

케이블 TV와 인터넷 방송 등 통해 방영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대국민 인식 높일 방침



검찰이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한 방송용 동영상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케이블 TV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서 전국에 방송될 홍보 영상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피해자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0초 분량으로 만들어진 홍보 영상은 드라마 ‘아이리스’ 등에서 열연을 펼친 배우 정준호 씨가 검사로 등장하여 성폭력 피해 소녀, 살인 유가족, 방화로 가족을 잃은 증인의 가장 등 각종 강력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을 도와준다는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각각의 의료지원 및 신변보호,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있다.

김주원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범죄피해자들이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라 국가와 각종 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무관심과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홍보 영상은 6월 말부터 케이블 방송과 철도·지하철 방송, 검찰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방송 시스템, 거리 전광판 등을 통해 전국으로 방영하고 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 초기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각종 권리를 통지하도록 의무화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010년 5월 27일 개정 지침에 따르면 각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피해자지원실과 사건관계인 대기실, 민원실에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보호,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비치해야 한다.

또 검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 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범죄의 가해자를 기소

chosun 살인범에게 남편 · 아들 잃은 여성들의 제빵강좌 수강

정지섭 기자 xanadu@chosun.com



▲피해자 가족 여성들이 담소를 나누며 빵을 만들고 있다.

“달걀을 꺾어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설탕·소금·바닐라향을 넣고 저어주세요. 역시 살림꾼답게 잘들 하시네.”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8일 스마일센터(서울) 2층 강의실에서 도넛 만들기 수업이 한창이었다.

테이블 위에 그릇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여성 4명이 강사의 말에 따라 열심히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었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에서 지난 7월 문을 연 국내 최초의 범죄피해자 종합지원시설.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가족이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 임시로 자립 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좌는 9월 초부터 시작됐다. 이날 수강생 4명은 모두 살인

범들에게 남편이나 아들을 잃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랑 얘기나 나누고 싶다고 호소해온 여성들이다.

제빵 강좌는 김포대학 호텔조리과 정수경 교수의 지원 봉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수업이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수강생들은 금세 친해졌고, 수업 시간은 흥겨운 미장원처럼 수다로 넘쳐났다.

“선선해지니 구수한 청국장 생각이 내네. 아이 아빠가 참 좋아했는데.” 2년 전 노숙자가 계단에서 밀쳐 넘어지는 사고로 남편을 잃은 A(67)씨가 입을 열자 B(57)씨가 맞장구를 쳤다.

“나한테 청국장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비법이 있어. 형님. 전자 데리집 앞에서 큼직한 빈 박스 주워다가 소쿠리 넣고 콩 넣고 그 위에 못 입는 옷 삶아서 얹은 다음 옥상에서 이틀만 뒤 봐. 기가 막히다니깐요.” 신나게 이야기하던 B씨가 “나 혼자 먹으려고 끓였냐? 남편이랑 새끼 먹이려고 끓였지?”라며 씩씩하게 웃었다.

B씨의 남편은 택시운전을 하다 3년 전 택시강도를 만나 끔찍하게 살해됐다.

가리앉은 분위기를 살리려 반죽을 하던 막내 C(30)씨가 입을 열었다. “근데 확실히 음식은 해먹는 것보다 얻어먹는 게 100배는 맛있어요. 나도 김치랑 된장 같은 건 친정 엄마가 다 해다 주거든요. 언니들도 딸들한테 그러죠?”

수강생 가운데 나이는 가장 젊은 C씨는 범죄피해자 경력으로 가장 선배다. C씨의 남편은 지난 2002년 술자리에서 사비 끝에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은 벌써 고등학교이 됐다.

도넛 반죽은 기름통에서 자글자글 익어갔고, 강의실에는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다. 도넛에 계핏가루와 설탕을 묻히고

던 D(67)씨가 희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네 사람 중 가장 말이 없던 D씨다.

“요즘은 딸들이 낳지만, 아들이 키울 땐 속 썩여도 나중에 얼마나 든든한데. 그나마나 다음 주가 추석인데...” 채 말을 끝내지도 못한 채 눈물을 뚝뚝 흘리자, A씨가 가만히 안아줬다.

D씨는 3개월 전 친취한 사위의 칼부림에 의아들을 잃었다. 아들에게 추석은 이쁜 날이다. C씨가 말했다. “목욕탕에서 등 밀어줄 아빠가 없잖아요. 뽀뽀 밀어 달라고 목욕탕에 폰도 더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꼬질꼬질 그대로예요. 하도 서러워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B씨도 눈가가 빨개졌다.

“난 집안 행사도 친구들 모임도 안 가요. 밤에 잘 때 옆에서 아직도 남편 숨소리가 들려. 요즘 택시를 타고 내릴 땐 구석진 골목까지 가지고 안 해. 그 시간에 기사 양반이 돈을 벌어야지.” A씨도 “방 안에 걸려둔 남편 사진을 보면 금방이라도 말을 걸 어울 것 같더라” 울먹었다. “그 노숙자가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화장실에 앞에 가던 우리 남편을 밀쳐서 죽였어. 그렇게 갈 줄 알았으면, 그해 남편이 여행 가지고 할 때 때 있어야 하는데.”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던 정수경 교수의 눈가가 빨개졌다.

“이렇게 웃다가 울다가 하면 시간이 금세 지나가버리니. 제가 오히려 이분들께 배우죠. 우리는 빵을 구우면서 슬픔을 나누고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수업이 끝나자 수강생들은 가족들에게 주기 위해 하트·별·초승달 모양의 도넛을 봉지에 예쁘게 포장한 뒤 “명절 잘 지내라”며 서로 인사를 나눴다. 수강생들에게 추석 소원을 물었더니 한결같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나와야죠.”

스마일센터의 프로그램

개인 심리평가 및 상담



피해자가 스마일센터를 최초 방문 시 전문 임상심리사에게 의한 심리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는 피해자와의 최초 면담을 통해 여러 가지 심리평가의 방법 중 피해자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루어지며, 성격, 정서, 인지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피해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상담이나 치료의 방법, 전략을 세우게 된다.

평가 이후 이어진 심리상담에서는 피해자와의 1:1 상담을 통해 무너진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건 이후 피해자의 변화된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심리평가의 유형

기능검사(K-WAS)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II
벤더-게슈탈트 도형검사	문장완성검사
주제통각검사	기질 및 성격검사
가족그림검사	집-나무-사람 검사

요리치료 및 직업교육



피해자들이 과거와 빵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과거를 굽고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죽의 촉감, 빵의 냄새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완성 후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빵을 보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이 서로 만나 함께 작업을 하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지하며, 과거의 상처를 보듬어 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추후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빵, 제과에 대한 직업훈련을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전문 직업 훈련 위탁기관과 연계하여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예정이다.

근육이완훈련법



범죄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불면증, 과도한 긴장 등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근육이완훈련은 치료를 통해 이러한 긴장을 유발하는 교감신경계의 과각성(불면증, 유발, 짜증, 집중력저하, 혈압상승, 근육의 긴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호흡이완훈련, 근육이완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피해자들은 진행자의 지도에 따라 익힌 근육이완훈련방법을 통해 차후 스트레스 심신의 긴장이 일어날 경우 스스로의 긴장을 완화하고,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근육이완훈련의 종류와 특징

- 깊은 호흡 훈련 : 심리적 긴장을 이완시키는 훈련법으로 편안한 자세에서 깊은 호흡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
- 빠른 이완 훈련 : 신체적 긴장을 이완시키는 훈련법으로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과정을 통해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완화시켜 준다.

스마일센터 프로그램 일정

- | | | |
|---|---|---|
| <p>■ 심리평가 및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시 : 수시 · 장 소 : 스마일센터 심리 상담실 · 담당자 : 김지연 임상심리사 | <p>■ 요리치료 및 직업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스마일센터 요리치료실 · 담당자 : 이명희 상담사 | <p>■ 근육이완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스마일센터 생활관 · 담당자 : 강태이 간호사 |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2010년 7월 1일

“스마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전문가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용대상자

-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스러우신분(본인 또는 가족)
- 범죄로 인해 주거가 소실되었거나, 범죄현장 정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거공간이 필요한 분

●서비스 내용

- 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심리치료
- 재활교육 및 구직 알선
- 임시 숙소 제공 등

●이용요금

- 무료

●이용방법

-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이용 가능

●이용문의

- ☎ 1577-1295



운영자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KCVA • Korean Crime Victim Support Association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위원의 자세와 역할

이종관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크던 작던,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은 통상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혹한 체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의 피해자로 신체의 상처를 입을 뿐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자신의 가치, 혹은 사회와 타인에 대한 안전과 신뢰의 감정이

근본부터 흔들리며, “공포와 불안” “고독의 감정”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 또 다른 피해자는 주위의 눈과 마스크의 선경적 취재,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몇 번이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범죄 피해자는 예컨대 중대한 신체적 휴유증이 남지 않는 경우라도 “사건”을 계기로 하여,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직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2005년 말부터 전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원하여 그나마 피해자들에게 다가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2005년 처음 생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0년 현재 전국 57개 지역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법 시행과 맞물려 앞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에는 열악한 조건 속에

서도 자발적으로 봉사의 대열에 참여한 민간 봉사의 헌신적인 참여가 뒷받침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흔히 민간봉사인들을 「자원봉사자」로 통칭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은 그 성격이 다르다. 범죄피해자들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Professional-care)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그 중요성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은 센터의 관심과 관리가 지극히 중요하며, 피해자를 대함에 있어 소홀함이나 전문성이 결여 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못된 피해자에게 더욱 아픈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자원봉사자는 철저한 윤리의식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자원봉사(Volunteer)는 자발적인 헌신(Voluntary)가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센터의 일원으로 정해진 방침과 규약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또한 상담 간 갖게 된 피해자 개인의 신상과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비밀유지가 되어야 한다.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

어야 하며, 피해자와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센터의 일원으로 행해지는 활동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피해자와 접촉시 적절한 유니폼을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로 전문 자원봉사자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피해자 심리와 상태에 대한 전문지식, 수사와 재판에 관한 기본 지식과 관련 법률지식은 필수적이어야 한다. 또한 상담 시 필요한 피해자 케어에 관한 지식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식등도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들의 이러한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센터에서는 신규, 또는 기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신규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상호 가상 실습이나, 현장 실습 연수 등을 통해서 피해자와 접촉 이전에 충분히 훈련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접촉을 해야 한다.

자원봉사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무상의 봉사활동이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엄격한 룰을 바탕으로 「윤리 규정」 「행동 강령」을 정하여, 활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들은 아주 작은 미용에도 엄청난 충격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작은 믿음과 사랑이 평생 잊지 못하는 감사와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모두 함께하는 범죄피해자지원

이재은 서울지방경찰청장 CARE팀 경장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충격과 이목을 집중시켰던 신정동 피해자 유족에게 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확정된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의 첫 번째 사례이기에 더욱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공황상태에 빠졌던 피해자 유족에게 보여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서울남부센터의 신속한 조치, 스마일 복지센터의 정성어린 심리치료를 거쳐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 등이 아픔을 겪은 분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기관의 시의적절한 대처와 노력이 이런 귀한 결실을 맺었고 예기치 않은 불행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CARE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은 경장입니다. CARE팀은 강력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 심리학 전공 및 임상경험자등 전문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저도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을 갖고 이 업무를 수행한지 벌써 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노력 덕분에 현재 전국 5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에 11명이 배치되어있고, 내년에 11명이 증원되어 좀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심리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스스로의 심리적인 문제까지 미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대다수입니다.

우선 눈앞에 닥친 생계문제, 병원치료 등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피해자의 문제를 인지하게 되면 저희 CARE팀에서는 각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일정적으로 피해자지원을 하고 계신 센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경제, 의료, 법률적인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관련 법령이 대폭 개선 보완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된 것에 범죄피해자지원업무 종사자로서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유관기관과 업무 담당자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좀 더 조직적인 연체체계와 업무 연계 시스템의 체계화가 이루어진다면 범죄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언론보도와 방송 등에서도 범죄피해의 실태와 지원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새삼 제기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신정동의 사례처럼 관련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뿐 아니라 유사한 기관간의 네트워크 협력 체계도 통합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원효과와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도 증대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금 주변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생각하면서 모두 함께 웃는 그날을 상상하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서울중앙센터

피해자 22명 초청, 2010년도 2/4분기 지원금 전달식

스마일센터 개소 현황 소개와 함께 “많은 이용” 당부



▲지원금 전달에 앞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서울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7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이용우 이사장, 고강운 위원, 오세인 중앙지검 2차장검사, 조재영 범죄피해자지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22명을 초청하여 2/4분기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지원금은 22명에게 각 200만원씩 총 4,400만원이 전달되었으며, 전달식에 앞서 7월 1일 개소한 스마일센터 소개와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달식에서 이용우 이사장은 “범죄피해자 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 이라면서 “정부로 위탁운영을 위임받은 스

마일 센터에는 성모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심리치료 전문 인력이 상근하여 언제든지 상담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심리치료와 더불어 여러분이 언제나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보금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재방 교육을 비롯한 각종 직업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 만큼 센터로 연락 주시면 스마일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세인 2차장검사는 격려사를 통해서 “기금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스마일센터도 개소한 만큼 피해자 여러분들도 하루 빨리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년 사법연수생 법률상담 봉사활동 실시

“피해 입은 분들을 직접 상담하고 도와줘 보람”



중앙센터에서는 사법연수생의 법률 지식 습득과 사회봉사 정신 함양을 위해 사법 연수원 하계 휴가기간 동안 중앙센터에서 피해자 법률상담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법률 상담봉사는 1차 7월 19일(월)~23일(금), 2차 7월 26일(월)~30일(금) 일정으로 각각 1차 6명, 2차 10명의 연수생들이 참가했다.

봉사 활동에 참가한 사법연수생들은 피해자들의 센터 방문상담과 전화 상담 봉사활동을 마친 뒤 소감을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직접 상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 사법연수생들이 봉사활동에 앞서 이용우 이사장으로부터 센터 상황을 소개받고 있다.

범죄피해자 73가정에 하계휴가비 지원

노환균 검사장과 이용우 이사장 격려의 말도

중앙센터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노환균)에서는 7월 21일 범죄피해자 73가정에 총 14,600,000원의 하계 휴가비를 지원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하계 휴가비는 노환균 검사장과 이용우 이사장의 격려의 말과 함께 우편환으로 발송이 되었으며, 범죄피해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외받지 않고 일반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용우 이사장은 격려의 말을 통해 “모든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피해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길 기대한다”며 “스스로가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때 내 가족과 이웃에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심기일전 해 달라”고 당부한 뒤 “가족과 함께 하계휴가를 뜻 깊게 보내달라”고 말했다.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www.kcvc.net

아동 성폭력범죄 수사전문성 강화위한 세미나 개최

보호와 지원 방안 및 재발 방지·억제대책 등 논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7월 14일 성폭력 상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아동·성폭력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서울중앙지검 아동 성폭력 전담 부서인 형사 제7부 검사 및 수사관 전원, 중앙센터 이용우 이사장,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문수연 소장 등 성폭력 전문가 3명, 관내 경찰서 강력팀장 14명 등이 참석하여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용우 이사장은 이웃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아동 피해자가 정신적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도매비 지원, 보금자리 주택 보증금 및 이사 비용을 지원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성폭력피해아동 진술을 특성 및 평가』, 『성폭력 사건 수사시 유의 사항 및 개정법률 안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 등의 이용우 이사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방안, 범죄 방지 및 억제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서울동부센터 강력사건 피해자에 300만원 지원금 전달 현재 불안증세로 스마일센터서 심리치료 중



▲이종관 이사장이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종관)는 7월 29일 청소년에 의한 집단 폭행 사망 피해자 가정과 성폭력 피해 가정에게 각각 3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집단 폭행 사건은 송파구 잠실동 먹자골목 주변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자신들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청소년 7명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한 피

해자가 가정의 생계를 꾸러가는 가장으로 사건이후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것을 파악한 뒤, 유족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했다.

성폭력 피해 가정은 아들 내외가 집을 비운 사이 강도가 침입하여 손자를 돌보고 있던 할머니를 성폭행 한 사건으로 사건 이후 피해자는 물론 범죄를

목격한 어린이 또한 심한 대인기피증 및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며, 거주지에서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족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동부센터는 의료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스마일센터에 의뢰하여, 현재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서울동부센터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피해자 발굴을 통해서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지원과 치료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사)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scvc.or.kr

“사랑의 마음을 배달합니다” 지원행사 84가정을 방문해 쌀과 감자 등 전달

서울동부센터는 지난 9월 15일 “사랑의 마음을 배달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범죄피해자 지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서울동부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가정을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명절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84가정을 선정, 1가구당 쌀 20Kg 2

포대와 감자 1박스, 양파 1자루 등을 전달했다.

물품은 이종관 이사장, 이재원 서울동부지역 검사장을 비롯한 센터 분과위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달했으며,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려운 가정은 사랑의 편지와 함께 택배로 발송했다. 특히 서울동부센터 김태산 위원은 감자 100박스, 양파 100자루를 참조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행사전 센터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남부센터 범죄현장 정리 및 청소 봉사활동 ‘신정동 문지마 살인사건’ 등 현장서



▲원봉사자들이 피해현장을 청소하고 있다.

(사)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승제)는 거주지에서 일어난 각종 강력사건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범죄현장 정리 및 청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건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들은 사건의 충격이 체 사라지기도 전에, 생활을 위해서 집에 남아있는 사건 흔적들을 스스로 정리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살인사건 등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혈흔 등 사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현장을 정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서울남부센터는 사건 현장 청소의 소요가 발생하는 현장 마다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7월과 8월에도 각각 1건씩 봉사활동을 벌인바 있다.

서울남부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정리 및 청소를 통해서 피해자가 보다 빨리 범죄의 상처를 잊고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장정리 청소 사례 1 (7월 21일)

식당 상해 사건
동업자 관계에 있던 두 남녀가 사업상 부진에 대한 말 다툼 끝에 남자가 여자를 칼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히고, 본인도 자해한 사건으로 사건 발생 수일이 지나고 현장이 제대로 정리 되지 못해 악취가 나서, 주민 민원이 많이 쇄도하는 상황이었음.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정리 요청이 들어와 사무처장 및 자원봉사자들이 현장 정리 및 부패된 음식물 정리 활동 등을 벌임.

■ 현장정리 청소 사례 2 (8월 7일)

신정동 ‘문지마 살인’ 사건
육탑방에서 생활하던 가정에 신원 불상의 강도가 침입하여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하고, 부인을 망치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사건 이후 관할 경찰서의 요청으로 출동하여 사건 현장의 혈흔 및 사건 흔적을 제거하는 봉사활동을 벌임.

신정동 사건 피해가정 이사 지원

서울남부센터는 10월 5일 지난 8월 신정동에서 일어난 일명 “육탑방 문지마 살인 사건” 피해자 가정의 이사지원을 실시했다. 신정동 사건 피해 가정은 8월 15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전격 시행으로 실

시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첫 번째 케이스로 LH공사의 협조 가운데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떠나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주택을 시세의 30%정도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울

남부센터는 이사 당일 김길수 사무처장과 자원봉사위원 2명이 피해자 가정을 방문하여, 이사집 정리 및 환경정리를 도왔다.

한편 남부센터는 이날 11시 센터 사무실에서 3/4분기 구조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정동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10명의 범

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확정했다. 신정동 사건 피해자 가정은 이날 결정으로 생계비 300만원과 의료비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6개월간 쌀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ssvc.or.kr

서울북부센터

제3차 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범죄 피해자 14명에 대해 4,150만원 지원



▲최주봉 이사장이 지원금을 전달한 뒤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주봉)는 7월 29일 서울북부지검의 센터 사무실에서 최주봉 이사장, 신민호 담당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제 3차 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14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4,15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지원금을 전달 받은 피해자들 중에는 방법장을 훼손하고 침입한 피의자에 의해 일가족 3명이 상해를 입은 일명 '발버리 사건'의 피해자들도 있었는데, 센터에서는 가족 치료비 명목으로 1,15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금 전달식에서 최주봉 이사장은 "갑작스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고 "과거는 빨리 잊어 버리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여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지원금 전달식 이후에는 센터 관계자들과 피해자 사이에 간담회를 가져,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사)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snvc.or.kr

서울서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홍보 리플릿 발간

피해자와 센터와 연결해 주는 가교역할 기대

(사)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는 센터의 역할을 홍보하고,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홍보 리플릿을 발간했다.

총 5페이지로 구성된 홍보 리플릿은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 소개와 더불어 범죄피해자들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 본

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서부센터는 발간한 리플릿을 지검 로비 및 민원실에 비치하여 피해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서와 구청 등 관련 기관에도 비치하여서 리플릿을 통한 적극적인 센터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서부센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개소한지 꽤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존재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에 발간한 리플릿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과 센터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플릿 전단지.

친부로부터 3년간 성폭력당한 아동 피해자 지원

심리상담 등 스마일센터와 연계 효과적인 지원 펼쳐



▲치료를 받은 아동가족이 스마일센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서부센터가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스마일센터와 연계한 효과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서부센터는 7월 25일 용산구청으로부터 한 사건을 의뢰 받았다. 친부로부터 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온 아동의 사례로 가해자인 친부는 구속이 되었으나, 사건 이후 어머니가 반찬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가족의 생계를 이어온 관계로 제대로 된 심리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에 앞서서 피해자 아동이 그간의 상습적인 성폭행과 구타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피해자의 남동생 또한 친부의 범행을 그대로 목격하여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한 점을 착안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와 절실하다고 파악해 스마일센터

에 의뢰하여 심리상담을 받도록 지원했다. 현재 피해자 아동과 가족은 스마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입소 초기에 비해 상태가 많이 호전된 편이다. 서울서부센터 관계자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인 범죄에 비해 피해자가 받는 충격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사건 접수 초기부터 적극적인 개입으로 체계적인 치료가 우선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앞으로도 스마일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에 힘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센터는 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자체 분과위원회 정기 회의나 초청강연, 지자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통해 범죄 근절 및 방지 대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북부센터 “범죄피해자지원 위한 제2회 사랑나눔 대 음악회”

피해자와 후원자 함께해 음악 통해 고통 나눠
수익 전액 범죄피해자 위한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



▲홍중진 교수 지휘로 대진 메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하고 있다.

(사)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송한근)는 10월 1일 저녁 7시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제2회 사랑나눔 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 마련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자선 음악회에는 대진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인 홍중진씨가 지휘하는 대진 메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테너 정중근, 소프라노 임경애, 피아노 이진이, 색스폰 강신태, 현광철 등이 출연하여, 가을밤 정취에 어울리는 그리운 금강산, 사랑, The Sound Of Music 등의 곡으로 클래식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또 음악회 출연자이자 대진대학교 음악학부 이진이 교수가 매 곡마다 알아듣기 쉽도록 해설을 곁들여 주어, 참여자들이 더욱 쉽고 친근감 있게 음악을 접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제2부지사를 비롯하여 김병수 의정부지검장,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장과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 및 음악애호가 1000여명과 함께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특히 범죄피해자 가족들도 센터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음악을 통해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송한근 이사장은 “범죄피해자 지원은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후원자가 함께 자리를 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고통을 나누는 사랑나눔이야말로 피해자들에게 더 큰 선물일 것”이라며 음악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음악회를 통해 거두어들이는 수익은 전액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범죄피해 당한 이주 근로자 피해자 지원

이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인권보호에도 힘쓸 터

경기북부센터는 5월 14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치한 센터 사무실에서 송한근 이사장과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교포로 국내 취업 중 미상의 피해자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중인 전모씨의 부인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피해자 전씨는 2009년 4월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울산, 충남 당진 등의 공장과 공사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2010년 3월부터 경기도 구리시 등지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을 하던 중 4월 12일 직업 안내소 화장실에서 복면을 한 괴한의 칼에 왼쪽 팔과 옆구리 등 5군데를 찔려 큰 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중이다. 안타깝게도 범인은 아

직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 이후 구리 경찰서의 안내로 피해자와 접촉한 경기북부센터는 피해자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고, 당장의 수술비와 입원비 부담이 곤란하다는 상황을 확인하고, 전씨의 부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원했다.

경기북부센터는 지난 7월 전 국민을 안타깝게 하였던 베트남신부 살인사건을 비롯해 최근 들어 이주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이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범죄피해지원과 인권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조수기 사무국장이 피해자기족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시책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춘천센터

피해자지원 지원 시책 설명회 개최 시·군·이(통)장 협의회 관계자 참석

(사)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윤현중)은 2010년 한 해 동안 춘천지검 관할 구역 내 이장회의 시 참석하여 피해자 지원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춘천센터는 지난 해 12월 29일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의 초기 접근의 신속성과 효과적인 피해자의 회복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시·군·이(통)장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을 맺은 바가 있다.

올해에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시책 설명회는 협의회와의 협약에 근거하여,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고, 관내 범죄피

해 발생 시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춘천 사북면을 시작으로 실시된 시책 설명회는 현재까지 14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었으며, 하반기에도 미실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춘천센터 관계자는 “관할 지역에 면, 리 단위로 구성된 지역이 많이 있는 만큼 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구석구석까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센터 범죄피해자 병원치료비 및 자립기금 지원 2005년부터 피해자 306명에 총 2억4천600여 만원 전문상담위원 연결하는 '사랑의 끈' 통해 회복 도와



▲이순국 이사장이 지원을 전달하고 있다.

(사)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은 지난 6월 22일 센터 상담실에서 이사장과 수원지검 박영철 검사장, 센터 사무국장인 참석하신 가운데 4건의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총 16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지원금을 전달 받은 피해자는 아간에 피한에게 납치되어 감금협박을 당한 피해자, 초등학교 2학년부처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구타 및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 같은 학교 후배가 휘두르는 칼에 찔려 상해를 입은 지적장애 고교생, 조선족 승객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택시 기사와 그 싸움을 말리다 칼에 찔려 상해를 입은 대학생 등으로 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생계 보조금, 의료비 명목으로 1,600만원을 전

달했다.

수원센터는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적장애 소년의 고등학생에게는 장애진단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친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협력 병원과 연계하여, 심리치료와 가족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하루 속히 범죄피해의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 도움 예정이다.

한편 수원센터는 2005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강력범죄 206건, 306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총 246,560,762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사후 관리 측면에서 센터의 전문 상담위원과 피해자를 1:1로 연결하는 '사랑의 끈'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 '사랑의 끈' 프

로그램은 멘토로 지정된 전문 상담 위원들이 주기적으로 피해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화와 상담을 통해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지원, 문

화 활동 동행, 학습지도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범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사랑의 끈' 지원 후기 및 피해자 후기

모든 것은 갑자기 일어났다!

유가족 윤○○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진 것 없이도 법안이 살아있는 소리들이며, 소박하게 살아온 친정에 큰 격을 갖는 여동생의 사연이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여동생은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여운 아들 두 방울을 남겨놓고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저의 철수가 넘으신 부모님은 다섯 자녀 모두 출가하시고 조용히 살고 계셨어요. 아들에게 7.8살의 손주를 맡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대한 나무처럼, 그 당시는 어수선하고 어리둥절하며 이게 맞게 해결되고 있는지 조마조마하고 가슴 졸였으나, 지나고 보니 착각 때문이 행하는 여러 도움을 통해 가지런히 정돈된 느낌입니다.

어린 두 아이와의 동행이 시작되고, 이제 하나의 소속으로 네 식구가 생활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보았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마지막 우리 손을 잡아주시던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선생님을 통해서 실질적 도움을 이처럼 많이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먼저, 가정변화로 상처받았을 아이들의 마음을 심리치료, 놀이치료로 인내해 선생님들의 방문으로 돌보아주시며 감동했고, 상담이 끝났을 때 예쁜 사진첩까지 만들어 주시며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작은 아이를 위해 센터에서 전문선생님을 보내주셨고, 추운겨울 먼 길 방문하여 배움을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무례함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따뜻

하게 위로하신 미술치료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형편을 헤아리시고 생각지도 않은 생계비 500만원과 한 달에 한번씩 감자, 고기, 과일, 학용품까지 사다주시는 센터 선생님에게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이 방학을 하여 불필요를 걱정하였던 부모님을 위해 센터에서 8일 동안 슬퍼까지 배우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하면서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아예 다 갚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아찔에 울면서 학교 가기 싫다, 받아쓰기 못하겠다, 영어 수학 등 어렵다, 등의 이유로 학교하기를 거부하기도 하는 일에 부모님들은 답답하고... 우울함에 참가되는 삶의 압박에 안타까움으로 주름과 한숨에 견디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버릇도 예의도 모르고 할말, 안 할 말 모두 쏟아버리는 골때리는 성격 가진 아이들에게 필요 한건 끝없는 인내와 사랑의 가르침뿐... 이 힘든 일상에서도 수시로 전화주시고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피곤길에 들려주시는 센터 선생님이 부모님에게는 크나 큰 위안거리이자 버팀목이 되어 준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빨리 컸으면 하는 바람 뒤에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내 가사가 어떻게 다듬어지는지 고난 뒤에 오는 결승과 운유로 채워져서 태양보다 더 밝은 은혜의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괴로웠던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과 그 불쌍한 두 아이에게 앞으로는 기쁜 일 만 기쁨을 바라봅니다.

청주센터

범죄피해자 초청 간담회 개최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모색



▲피해자 초청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두영)와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수남)은 6월 25일 지검 소회의실에서 전달 검사와 청주센터 사무국장 및 분과위원들

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범죄 피해 이후 국가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부터 지원 혜택을 받은 범죄피해자들을 초청하여, 수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질적인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되었으며, 이날은 범죄피해자 10명이 참석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피해자들 중에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소지한 열총을 피해자에게 발사하여, 한쪽 다리를 절단하여야 했던 피해자의 아버지와, 청주 일원에서 발생한 택시 강도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도 포함이 돼 있었다.

이들 피해자들은 모두 범죄 피해 이후에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받지 못해 고통 받던 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으

로 지원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이다.

간담회 이후에는 피해자들과 센터 관계자들과의 오찬이 있었으며, 오찬 이후에는 청사 견학을 통해 검찰에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부소 상담위원장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가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간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청주센터는 향후 지속적인 피해자 관리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한 번의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부산센터 더위야 물렸거랏! 자연 속 1박 2일!

범죄피해 아동·청소년 멘토링 여름 캠프 다녀와

(사)부산 범죄피해지원센터(이사장 구정희)는 범죄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피해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살인 유가족, 강도,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지역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자들의 멘토로서 활발히 활동 중

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멘토링은 월 2회~3회 정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월 1회 멘토링에 참가하고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는 공동 활동인 '함께해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 방학 기간에는 경남 합천의 자연학교로 '더위야

물렸거랏! 자연 속 1박 2일!'이라는 주제로 여름 캠프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오랜만에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옥수수 따기, 풍간체험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소통하며,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부산센터는 앞으로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피해 아동 및 청소년들이 대나무통으로 만든 물총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다.

(사)부산범죄피해지원센터 www.bcvcr.or.kr



▲ '청소년 특수강간'을 주제로 2차 회의를 한바 있다.

부산센터는 6월 23일 부산지검에서 부산지검, 부산 성폭력상담소와 공동 주관으로 제 3차 피해자 지원 전문가 사례회의가 사

부산센터·부산지검·성폭력상담소 합동 제3차 피해자 지원 전문가 사례회의 가져

회의를 개최했다.

피해자 지원 전문가 사례회의는 사건 지원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접근과 더 나은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부산지검과,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발족이 되었으며,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해 현재 3회에 이르고 있다.

회의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1차 회의 시에는 '아동 성폭력' 2차 회의 시에는 '청소년 특수강간'을 주제로 모임을 가졌으며, 이

번 3차 회의에서는 '친족에 의한 강간과 피해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피해자 지원의 방향과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센터 관계자는 "전문가 사례회의는 검찰청과 경찰청을 비롯하여 부산시 지자체의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각종 의견들은 부산센터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울산센터

울산지방경찰청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위한 협약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울산 범죄피해지원센터(이사장 김광태)는 9월 9일 11시 울산지방경찰청 1층 회의실에서 김광태 이사장과 김수정 청장, 경찰청 및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방경찰청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사건 조사 중 피해자가 어려움에 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범죄피해지원 의뢰서』

를 작성하여 센터에서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울산센터는 경찰청을 통해 의뢰된 피해자들에게 대해 상담 및 경제, 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결과를 경찰청에 통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에 동의했다.

김수정 청장은 "형사절차에 있어 피의자의 인권은 괄목할 만큼 법적·제도적 향상을 이뤘으나,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너무 부족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 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광태 이사장은 "경찰청과 협력 하에 소외된 범죄피해자들이 없도록 더욱 피해자 발굴과 보호·지원에 힘을 쓸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범죄피해자 격려의 장 자조모임

'묻지마 범죄' 등 피해 가족 10세대 초청

울산센터는 8월 25일 센터 사무실에서 '묻지마 범죄'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 피해자 및 가족 10세대를 초청하여 자조모임을 가졌다.

이번 자조모임은 범죄피해 이후 홀로 상처와 고통에 맞서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범죄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리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조속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범죄 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모임에는 신원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도 가해자를 찾을 수 없어 치료보상 등의 문

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 범죄 피해자들이 참석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울산센터는 그 동안 인지부족으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였던 소외된 피해자들에게도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며, 자조모임 등을 통한 피해자 회복에도 부단히 힘을 예정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며 자조모임을 갖고 있다.

(사)울산범죄피해지원센터 www.ucvcr.or.kr

대전센터 지역 병원들과 『의료지원 협력병원 협약식』 임시총회서 손종현 이사장 제3기 이사장 연임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손종현)는 8월 24일 대전지검 3층 중회의

실에서 지역의 병원들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지원 협력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대전센터의 의료지원위원회 소속된 위원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총 20개의 병원과 협력을 맺었다. 이로써 대전센터는 현재 협력중인 9개의 대학병원 등을 포함하여 29개 병원과 연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을 맺은 병원은 ▲갑별 가톨릭 피부과 의원(원장 김운성) ▲A.스마일치과병원(원장 박철) ▲김상국 신경정신과(원장 김상국) ▲박비뇨기과(원장 박용진) ▲대전 카톨릭병원(원장 성진형) ▲유성정형외과(원장 권도원) ▲세

계영상외과의원(원장 한세동) ▲이광우 치과의원(원장 이광우) ▲수이비인후과의원(원장 송영복) ▲우리의과(원장 정성필) ▲녹원치과의원(원장 강한중) ▲송촌산부인과(원장 양관철) ▲세브란산산부인과(원장 양관철) ▲한빛내과(원장 이두용) ▲연세 눈빛안과(원장 이효) ▲배사랑 내과(원장 이승민) ▲새순병원(원장 정재인) ▲The 맑은눈안과(원장 김세운) ▲맑은마음신경정신과(원장 이정은) ▲플랜트치과(원장 손의수)이다.

한편 협약식 전에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손종현 이사장(주)남산기공 대표이사)가 제 3기(2010.8.26 ~ 2012. 8. 25) 이사장으로 연임되었다.

피해자 가정 방문, 추석맞이 명절선물 전달 “마음만은 따뜻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 밝혀

대전센터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소병철)과 함께 추석을 맞이하여 범죄피해자 가정을 방문,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금과 쌀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이번에 방문한 가정 중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가정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재혼한 계부에 의해 재혼가 수년간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다. 실상가상으로 이

가정은 자매의 남동생이 안과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어머니마저 허리가 좋지 않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이 가정은 철거촌 단칸방에서 기초생활수급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대전센터는 이미 사전 접수 후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

원한 바가 있다.

가정방문에 참석한 대전센터 관계자는 “가정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만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며 “마음만은 따뜻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종현 이사장 등이 피해가정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주센터, 제5회 정기총회 및 연찬회 개최 피해자 900여만 원 지원금, 외국인에 첫 지원도 이사 3명에 검사장표창과 다문화가정분과 전문위원 등 위촉



▲강재업 이사장이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제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강재업)는 8월 30일 19시 리버티호텔 탐타

홀에서 제 5회 정기총회와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와 이견리 제주지검 검사장, 양성연 제주도교육감과 피해자센터 직원들을 비롯하여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가족 및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각 국가 대표 11명도 참석 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 전달식에서는, 참석한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총 95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살인피해자 유족 A씨에게 생계보조금으로 300만원, 살인미수 피해자 B씨에게 1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태국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로, 작년에 농업연수원생 신분으로 취업차 왔다가 동료의 칼부림으로 상체를 입고 치료중인 A씨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루어졌는데, A씨는 제주센터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의 첫 사례이다.

이 사례를 계기로 제주센터는 제주내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 연찬회에 다문화 가족 대표들을 초대하여 다문화가정의 범죄피해지원과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편 행사에서는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세심한 살림과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을 다짐하고,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의 범죄피해지원과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공자에게는 제주지검 이견리 검사장의 표창이 수여되는 한편, 앞으로 더욱 확장 될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문화가정분과 전문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기도 했다.

(사)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jejuvcv.org

전주센터

초·중·고등학생 위한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 실시 검사 및 전문가 초빙, 2009년부터 지역학교 순회



(사)전주 범죄피해지원센터(이사장 홍종길)은 날로 증가하고 그 수법에 있어서 흉악해 지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전주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센터에서는 2009년에는 지역 내 59개 학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번 상반기에도 10개 학교 학생 116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순회교육 기간에는 전주지검 범죄피해자 지원담당을 맡은 전병주 검사를 비롯한 지검 검사들과 협력기관인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 상담소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그 피해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본인과 타인에 인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강의했다.

한편 전주지검 검사들은 강의 후 강사로 전역을 도서 구입하여 해당 학교에 기증했다.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주·문경·예천센터

신임이사 위촉과 성금마련 위한 후원회 출범식 피해자 돕는 사회적 분위기 정착 유도에 앞장



▲출범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지원센터(이사장 정일)는 5월 12일 대구지방 검찰청 상주지청 대회의실에서 정일 이사장과 김한수 지청장, 허성환 전담검사 등 센터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5명의 신임이사 위촉식과 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후원회는 지역사회에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 되었다.

출범 이후 상주 삼모병원에서 직원 및 병원을 찾는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총 168구좌(420,000원)를 모집했다.

출범식 행사에서 정일 이사장은 "신임이사들의 위촉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

회적 약자에 대한 아름다운 책임을 더해 주길 바란다"고 전하며 "이번에 출범하는 후원회가 범죄피해자가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지역 범죄 피해자를 지역민 스스로가 돕는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센터는 앞으로 지역 내 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널리 알리고, 후원회 모집 활동을 활발히 벌여 범죄피해자를 돕는 사회적 분위기 정착을 유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2010 상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Day” 행사 홍보부스 마련해 리플렛 및 전단지 배포해



상주·문경·예천센터는 5월 29일 상주 북천 시민공원에서 개최한 “2010 상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Day” 행사에 참여하여 센터의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상주시에서 주최하여 관내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자원봉사 홍보 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의지를 향

상시키고자 개최되었다.

이날 상주·문경·예천센터에서는 40여개의 홍보부스 중 하나의 부스에서 리플렛 및 전단지, 기념품 각 500개를 배포하는 한편, 부스를 찾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사진, 포스터 등을 활용해 센터 사업 및 활동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센터에서는 그동안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지도 조사를 위해 참여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기도 했다.

◀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센터 부스에서 설문조사에 답하고 있다.

경남센터 의료·법률·상담총괄분과위원회 회의

분과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 모색



▲분과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경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연)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각각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5월 24일에 의료지원분과회의, 6월 3일에 법률지원분과회의, 6월 9일에 상담총괄분과회의의 일정으로 진행된 각분과 회의에서는 분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되었다.

특히 이번엔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된 신입위원들의 앞으로의 활동을 위하여 ▲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 ▲범죄피해자지원절차 ▲각 분과위원회의 역할 ▲상담위원들의 자세 및 기본 상담 기법 등을 교육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상연 이사장은 "효과적인 피해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도 전문화된 분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분과 위원회의 활동과 정기적인 회의,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파주센터

일산경찰서와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체결

피해자 법률상담이나 피해보상 등의 지원도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

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갖고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최근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이 법 지식 및 지원절차에 대해 미숙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고양시 지역 내 성폭력, 강도, 상해 등 강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상호 협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 되었다.

협약 내용에서 두 기관은 일산 지역의 범죄피해자가 사건 이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다짐하고

특히 강력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지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

협약식에서 손재상 이사장은 "그 동안 범죄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았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든 범죄피해자들이 신속한 절차에 의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대를 밝혔다.

이원재 일산 경찰서장은 "앞으로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에 힘쓰는 한편, 성폭력, 강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한다는 일념으로 범죄 발생 여제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사)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층 한울정에서 손재상 이사장과 이원재(이사장 손재상)는 6월 17일 일산 경찰서 일산 경찰서장,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

(사)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gpcvc.or.kr

■ 일산 경찰서와 연계한 피해자 지원 사례

사건 1

영리유인, 감금,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신지체장애자인 피해자를 3개월 가량 피의자의 집에 감금하고,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파지 수집 등의 일을 시켰으며, 지속적으로 강간한 사건.

일산 경찰서에서 사건 의뢰 후 생계를 꾸려나가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교통사고 이후 몸이 좋지 않아 겨우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점, 피해자의 오빠 또한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월 심의위원회에서 300만원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여 지원하였으며, 결연위원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 가정과 접촉하고 있음.

금번 한가위를 맞아서 명절지원금 30만원과 쌀 20Kg을 지원함.

사건 2

강간미수, 폭행 피해자 지원

2010년 6월 중순경 서울 시내 모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의자와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의자와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피의자가 들변하여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

사건 이후 심한 심리 불안과 더불어 강간 시도 시 피의자에 의한 구타에 의해 치료가 절실한 상황에서 일산 경찰서에 의뢰에 의해 피해자센터와 접촉을 하여 의료비 100만원을 지원함. 또한 피의자의 가족들이 자꾸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재판 당일 센터에서 법정 동행을 출장 지원 함.

사건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2010년 7월 경 집에서 딸과 함께 자고 있던 도중 칼을 든 강도가 침입하여 "소리를 지르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강간한 사건.

일산경찰서에서 사건 의뢰 후 피의자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남편이 식당에서 주차관리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도의 불안 상태를 보이며, 범행을 당한 현재의 주거에서의 이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개월 간 100만원씩 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결연위원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상담 치료 중.

금번 한가위를 맞아서 명절지원금 30만원과 쌀 20Kg을 지원함.

강릉센터, 단오축제와 해수욕장개장 기간 원주대 법학과 학생 및 자원봉사자 센터 홍보 정기적으로 지역 행사와 연계한 센터활동 알려

(사)강릉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조병제)가 지역 내의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센터의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릉센터는 지난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강릉 단오축제 기간에 센터 자원봉사자들과 강릉 원주대학교 법학과 한빛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함께 센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홍보 활동 간에는

사진 제작한 어깨띠와 홍보 리플릿 등으로 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을 축제에 참가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 주민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존재와 하는 역할에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축제 기간 홍보를 통해 센터의 역할이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홍보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보람된 일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동참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강릉센터는 관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 해수욕장 행정봉사실에 자원봉사자를 1명씩 상주시켜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센터 홍보 활동을 벌인 바 있다.



▲학생들이 단오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홍보전단지 전달하고 있다.

속초 · 고성 · 양양센터

추석맞아 범죄피해자 가정에 선물 전달



▲상품권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평규)는 중추절을 맞아 범죄피해자 상품권 전달식을 가졌다.

속초·고성·양양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 가족들에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차례상 준비 등에 보탬이 되도록 재래시장 상품권을 선물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실시되었다.

행사는 20명의 범죄피해자 가족과 최평규 이사장, 각 지역의 부이사장(속초/최근석, 고성/김기연, 양양/이형섭),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평규 이사장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 전달식 이후에는 범죄피해자와 센터관계자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오찬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속초·고성·양양센터 관계자는 "명절같이 좋은 날 오히려 범죄피해자들은 오히려 소외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며 "이번 지원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속초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sokb.or.kr

공주 · 청양센터

‘사랑의 나눔 행사’ 가져

위원들 자발적 동참으로 쌀 200Kg 등 전달

(사)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정지연)는 9월 17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던 범죄피해자 57가정에 쌀을 비롯한 명절맞이 추석 선물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센터 이범수 위원이 쌀 200Kg을 기증하는 등 센터 위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는 정안면에 거주하는 폭행상해 피해자도 있었는데,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아 치료비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체장애에 남편을 수발하면서 딸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센터에서는 지난 7월 치료비로 5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번 행사에도 방문하여 사랑의 마음을 나누었다.

한편 공주·청양센터는 지난 9월 1일 총회를 개최하여 최재홍 이사장에 이어 정지연 회대표를 이사장으로 위촉했다.



▲이범수 위원이 피해자 가정에 쌀을 전달하고 있다.

경주센터 “한가위 사랑나누기”

피해자 14가정 선정해 생필품 전달



▲이정우 이사장이 피해자 가정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경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정우)는 9월 14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던 범죄피해자 가정 중

14가정을 선정하여 센터에서 준비한 생필품을 전달하는 “한가위 사랑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센터에서 준비한 쌀 10Kg, 라면 1박스, 밀치 1박스, 김·참치 세트 등을 전달함으로써 일반인과 동일하게 풍요로운 명

절을 보낼 수 있게 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정우 이사장은 행사에 앞서서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주위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 위트가 필

요하다”면서 “이 행사로 인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범죄피해의 고통을 잊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명절 인사말에 대신했다.

(사)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gjvc.or.kr

논산·부여·계룡센터 시·군·교육청과 다문화가족 보호·지원 협약식 법인 설립 4주년 기념식 갖고 활동평가도



▲협약식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논산·부여·계룡 범죄피해지원센터(이사장 신형철)는 9월 15일 논산농협중앙회 4층 무궁화홀에서 논산(시장 황명선), 부여(군수 이용우), 계룡(시장 이기원),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교), 충청남도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오선규)과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범죄피해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논산·부여·계룡은 농촌 지역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결혼 이민자가 많고 다문화 가족에서 2세대들이 출생함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논산·부여·계룡센터는 다문화가족에게 우리의 사법 시스템 및 기초 법률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빨리 우리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논산·부여·계룡 센터는 협약식에 앞서 센터 법인 설립 4주년을 맞아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법인 설립 4주년 기념식을 가지고, 그간의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신형철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범죄피해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구조의 희생자이며,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며, "더욱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여,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의 역할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담은 6개항의 범죄피해자 권리선언을 선포하기도 했다.

한편 논산·부여·계룡 센터는 협약식에 앞서 센터 법인 설립 4주년을 맞아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

대구서부센터 대학생 봉사단 제1회 정기회의 및 단장 취임식 곽성호 이사장 "고통받는 어린 학생들에 힘과 용기가 되어 주길" 당부



▲곽성호 이사장이 이동열 초대 단장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대구서부 범죄피해지원센터(이사장 곽성호)는 6월 1일 센터 사무실에서 '대학생 봉사단 제1회 정기회의 및 단장 취임식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생 봉사단은 이날 취임한 센터 운영위원장 이동열 초대단장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가정 학생에 대한 학습지도, 멘토 역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대한 집안일 도우미, 법정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기회의에서는 서승기 사무처장의 '범죄피해자 지원 보호제도의 종류와 대학생 봉사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발

표를 시작으로 대학생 봉사단의 역할과 책임을 돌이켜보고, 단원간의 교류를 통해 앞으로 봉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곽성호 이사장은 "센터 설립 이후 지난 2년간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괄목한 만한 성과와 실적을 달성하면서도 어린 학생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을 볼 때 항상 아쉬움이 있었다"며, "오늘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대학생 봉사단이 어린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홍보활동 고령읍내 및 시장일대서 시민대상

대구서부센터는 6월 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박충근)과 함께 고령읍 고령읍 일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센터활동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센터의 신근철 생활지원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고령읍 시장을 중심으로 사전 제작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홍보 활동을 벌였다. 홍보활동 시간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를 당했을 시 피해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및 무료법률상담,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의 각종 지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다.

대구서부센터는 앞으로도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지원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정기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센터의 활동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생활지원위원장 및 위원들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천 · 구미센터 피해자 가족 『아동 · 청소년 자존감 형성 및 강화』 연령과 성별 기준으로 리더십 및 성교육 실시



▲리더십과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길노)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을 위한 『아동·청소년 자존감 형성 및 강화』 프로그램을 2회기에 걸쳐 실시했다.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 능력을 기르며 미래의 꿈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고 올바른 성에 대한 태도를 가지며 자아정체성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이번 프로그램은 리더십 교육(강사 이병희)과 성교육(강사 김현숙)으로 구분하여 2차에 걸쳐 진행이 되었다.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1차는 7월 22일부

터 26일까지 3회에 걸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8월 9일에서 11일까지 3회에 걸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길노 이사장은 "최근 들어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장은 또한 "범죄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이 절실한 가운데 이번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자주 개최하여 피해자 아동,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자조모임(Forever, 햇살그린) 단합대회

피해자와 자원봉사자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등

김천·구미센터는 6월 26일 경북 구미시 소재 금오산에서 피해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조모임(Forever / 햇살그린)의 단합대회를 가졌다.

김천·구미센터의 자조모임은 강력 범죄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변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다시금 범죄의 상처와 고통에 홀로 맞서야 하는 피해자들이 유사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끼리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다시금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매월 1회씩 실시되고 있다.

이번 단합대회는 김천·구미센터가 준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센터의 전태경 위원은 피해자들을 위해 살 10Kg 12포대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길노 이사장은 행사에 앞서 "이번 단합대회 통해 피해자들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더욱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이러한 자조모임을 더욱 활성화 시켜 피해자들이 건강한 삶을 하루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및 가족들이 즐거워하며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사)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victim.or.kr

밀양 · 창녕센터, 범죄피해자지원

시·군민 네트워크 자원봉사자 교육 및 위촉식

‘범죄피해자 도움의 집’ 운영 통해 울타리 역할 수행



▲박형철 지청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 밀양지청에서 장익근 이사장과 박형철(이사장 장익근)은 4월 28일과 29일 양일 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자원봉사자들의 집에는 '범죄피해자 도움의 집' 표창이 붙어있다.

지원 시·군민 네트워크 자원봉사자 위촉식 및 교육,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90여명의 시·군민 네트워크 자원봉사자들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피해자 발굴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집에는 센터에서

제작한 "범죄피해자 도움의 집"이라는 표창을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밀양·창녕센터와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장익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협약을 결성된 자원봉사자 네트워크가 우리지역의 불의의 범죄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박형철 지청장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소외받는 피해자가 없는 내 고장을 만들어 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어진 소양교육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홍보 영상 시청과 더불어 이성희 마인드디자인 컨설팅 소장을 초청하여 "함께 웃는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진주센터 범죄피해자지원 ‘사랑의 돌보미’ 출범 1차로 25가정 선정, 1운영위원과 1가정후원 체제 운영



▲ ‘사랑의 돌보미’ 운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운우)는 7월 12일 범죄피해자 가정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센터 상담위원으로 구성된 ‘사랑의 돌보미’ 출범

회의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랑의 돌보미’는 피해자 지원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센터 전문 상담위원과 범죄피해자 가정을 1:1로 연결하여 지속

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주기적으로 피해자 가정을 방문하여 심리상담 및 생필품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진주센터는 1차로 25가정을 선정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진주센터는 2009년 하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정(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펼쳐 하동지역의 사업가로부터 부지(100평)를 지원받아 건축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센터 운영위원들의 지원금, 기부금을 바탕으로 현재 모자가 거주할 새로운 보금자리를 건축 중에 있다.

또 다른 ‘사랑의 돌보미’ 가정은 베트남에서 이민 온 결혼 이민자 여성으로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못 이겨 이혼신청 후 쉼터에서 생활 중인 피해자이다. 센터는 상담을 통해 가장 절실한 부분이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



▲피해가족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센터 상담위원장(대신정공, 대표이사 구재홍)의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해자는 현재 성실히 일하며, 재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한편 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의 돌보미와 연계된 가정들을 초청하여 서 식사를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격의 없는 오찬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진주센터는 앞으로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센터와 결연을 통해 하루 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제천 · 단양센터 추석맞이 피해자 5가정 센터로 초청 명절 지원금 전달한 뒤 영아원방문도



(사)제천·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한철웅)는 지난 9월 20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범죄피해자 5가정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범죄피해로 인해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다함께 풍성하고, 살맛나는 추석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가정을 센터로 초청하여 한철웅 이사장이 준비한 명절지원

금을 직접 전달했다.

한편 전달식 이후에는 제천지청 장영식 지청장과 한철웅 이사장을 비롯한 지청, 센터 관계자들이 제천시 교동에 위치한 영아원을 방문하여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철웅 이사장은 “작은 나눔이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장영식 지청장과 한철웅 이사장이 명절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거창 · 함천 · 함양센터 무의촌 노인 대상으로 의료봉사 식사와 법률상담, 미용봉사 병행해

(사)거창·함천·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현덕)에서는 7월 3일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복지회관에서 무의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무의촌 의료봉사에는 센터의 의료지원위원회(위원장 추교운/적십자병원장)를 중심으로

소속된 외과, 내과, 한의과, 피부과, 치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무료로 환자들을 진료했다. 이와 더불어 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법률상담, 미용봉사를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150명의 주민들

이 무료 진료를 받고, 기관 단체장들과 지역 인사들이 제공하는 기념품을 받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마을 주민 이재구씨는 “요즘 시골마을에는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어서 병원 한번 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방문을 하여 무료로 진료해주시어 어른들께서 매우 즐거워하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어르신들이 무료 진료 후 링걸을 받고 있다.

이현덕 이사장은 “앞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더불어 정

의료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센터 센터·지자체·협력병원이 하나 되어 피해자지원 망화사건 피해자 생계비 및 병원비로 1400만원



▲이종찬 사무국장이 피해자를 병문안하여 안부를 묻고 있다.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협력병원이 하나 되어 자칫 잘못하면 큰 실의에 빠질 수 있었던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찬호)는 7월 21일 피의자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주변에 시너 등을 뿌린 후 불을 붙여 신체표면의 33%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 생계지원비 및 병원비 명목으로 1,400만원을 지원했다.

안양지청의 연락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안양 센터는 자체적으로 치료비 200만원을 우선 지원한 후 환자가 입원하여 있는 한강성심병원의 사회 복지팀과 연계하여 치료비 700만원을 지원 받았다. 뿐만 아니라, 안양시 측에 피해자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여서 지원금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피해자 가정이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힘썼다. 안양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전국 연합회도

치료비 300만원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했다.

이렇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한 결과 피해자는 현재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거주지 근처 화상전문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안양센터는 범법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전남동부센터

시·군 지부 결성 및 사랑의 마음 전달식

피해자 4명에 지원금전달과 신규위원 소양교육도

(사)전남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정응길)는 광주지방감찰청 순청지청(지청장 조주태)과 함께 지난 6월 15일 순청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시·군 지부 결성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군지부는 전남동부 센터가 관할하고 있는 6개의 행정구역 내의 구석구석에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발굴하고,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지원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여수지부, 순천시지부, 광양지부, 고흥지부, 보성지부, 구례지부를 결성하여 신규 위원들을 위촉했다. 위촉식에서는 순청지청 김희재 차장 겸사가 '센터의 역할과 위원의 임무'라는 주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서는 조주태 지청장과 정응길 이사장이 범죄피해자 4명을 초청하여 피해자 지원금을 전달하는 사랑의 마음 전달식도 병행했다.



▲조주태 지청장과 정응길 이사장이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jnvc61.or.kr

남원·순창·장수센터

의료지원위원회 중심, 무료법률상담 및 의료봉사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순창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이 무료진료를 받기위해 접수하고 있다.

(사)남원·순창·장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고재훈)에서는 9월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순창다문화 가정지


원센터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엔 봉사활동을 나간 순창지역은 약

250명의 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지역과 다르게 빠르게 다문화사회가 정착되고 있는 지역이다.

센터는 이날 전문의와 간호사들로 구성된 의료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주여성들의 의료상담 및 건강 상담과 더불어 고향을 떠나 타국 땅에 시집와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

다. 한편 함께 봉사활동을 나온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을 하였지만, 아직 한국 이름을 갖지 못한 이주여성들에게 개명신청 접수를 도와주었다.

남원·순창·장수센터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한편 이주여성들과 다문화 가정의 인권 보호에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보호와 지원 <http://www.kcva.or.kr>

발행처 :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Korean Crime Victim Support Association

발행·편집인 : 이용우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대검찰청 107호
전화 : (02)596-1295 팩스 : (02)3471-1295
메일 : kcva@kcva.or.kr